

## 《뜻으로 본 한국 역사》

# 씨을들이 모여 올곧은 뜻을 세워야 한다

글\_은종복 불무질서점 대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데 작은 도움이 될까. 이 책은 그런 물음을 스스로 하게 만든다. 수많은 나라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다들 제 나라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지금 한반도 북녘과 미국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려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한반도 남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미국이 만든 첨단 무기를 사오기에 바쁘다.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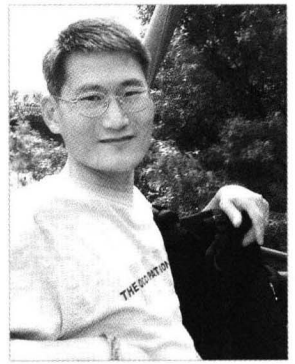
이 책을 쓴 함석헌은 폭력을 쓰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씨을들이 모여 올곧은 뜻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씨을'은 누구인가. 씨을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며,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다. 씨을은 몸뚱이 하나 믿고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농사꾼, 노동자,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씨을이 아니다. '뜻'을 가져야 한다. 뜻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과 어울려 살고 스스로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남을 살리겠다는 마음이다. 벌레 하나, 풀씨 하나에도 소중한 목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아끼고 섬기는 마음이다. 그런 사랑으로 '뜻'을 품어야 한다. 그 사랑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이 가진 뜻이다. 그 때서야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도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넘친다. 그런 뜻을 가진 씨을들이 나서야 세상이 맑고 밝아진다.

함석헌은 우리 역사를 '아픔으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서른 해를 멀다 하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다. 얼마나 더 많은 목숨들이 죽어야 평화가 올까.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멈출까. 온갖 욕심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함석헌은 수양대군이 죽인 여섯 사람을 하나님이 내린 뜻이라고 했다. 사육신이 죽음을 부르는 또 다른 싸움으로 세조를 왕 자리에서 몰아냈다면 마음씨 착한 수많은 씨을들이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육신은 하늘이 내려 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이 죽어서 수많은 씨을들을 살렸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 함석헌은 말한다.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는 싸움만이 세상을 맑고 밝게 한다고.

저자는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한다. 아니 하나를 찾아간다고 말한다.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노자, 장자, 율곡, 간디, 타고르 같은 슬기로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좇아서 살았다. 그들 누구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면서 평화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뜻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다른 이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 이 글을 쓴 은종복은 현재 서울 명륜동에서 인문사회과학서점인 풀무질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몇몇 보수 종교 집단들과 그들을 등에 업은 돈에 눈먼 사람들이 맑은 마음을 가진 씨  
올들을 종교 이름으로 죽이고 있지만 결국 슬기로운 세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  
상은 온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가만히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슬한 아픔과 죽음 속에서 태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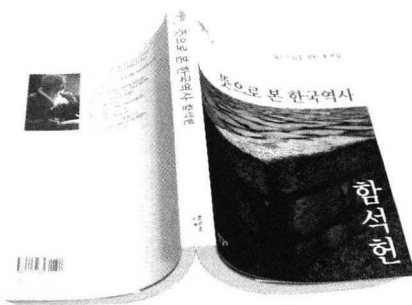
더군다나 우리 역사는 아픔 속에서 커 왔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앞당기는 세상  
을 가져오는 데 남다른 책임이 있다. 그것은 책임이기에 앞서 꿈이다. 한민족은 가진 것 하나 없  
지만 오로지 '착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맑고 밝게 할 수 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진정으로 풀 수 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세상은 갈수록 서로 죽고 죽이는 늪에 빠져들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끝없는 경제 개발로 자연을 더럽히고  
있고, 세계 평화를 말하면서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나고 없는 자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 간다. 이제는 더러워진 자연이 사람들 모두를 죽일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난한 나라에 살거나 잘사는 나라에 살거나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살려고 만  
든 기계 문명은 이제 쓰레기가 되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 때에 함석헌이 말하는 '씨울이 가진 뜻'은 더욱 소중하다. 노동자 계급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없다면, 있어도 이미 핵전쟁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이 되었  
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물을 사먹거나 정수기를 써서 물을 걸러 먹는다. 앞으로 나라들은 석유가 아  
니라 깨끗한 물을 서로 가지려고 싸울 것이다. 공기도 사먹게 될지 모른다. 아니 벌써 맑은 공기  
를 판다는 소리가 들린다. 함석헌이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자연 재앙은 없었다. 이런 생태계  
파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문명에 의해 싹 트고 그 골은 갈수록 깊어진다.

몇몇 환경론자들은 지금 자연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도 자연이 벌이는 재앙은 멈추지 않  
는다고 한다. 그러나 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책을  
쓴 더글러스 리미스가 말한 대로 '방사능이 있는 유토피아'라도 만들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처럼 물레를 돌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식민지 정책에 맞서야 하고 기계를 쓰는 삶을  
벗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삶을 찾아야 한다. 함석헌이 말하는 '씨울이 가진 맑은 뜻'을  
세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죽이  
면서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남을 살리면서 나도 같이 사는 폭력이 없는 높은 뜻이다. 숨을 가다  
듬고 천천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 씨앗을 퍼뜨려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평화  
씨앗을 뿌려야 한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부르지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부른다. 더군다나  
한반도가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은 시대가 바라는 큰 뜻이요, 지구가 평화롭게 되는 일에 무엇  
보다 앞서 할 일이다. 이 일에 한겨레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 바로 지금 우리 '씨울'  
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을 걷는 데 작은 힘이 된다. **추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지음 | 한길사 | 504쪽 | 값 15,000원